

울산시소방본부, '울산안전체험관' 기공식

강동관광단지 내... 320억원 투입, 5개 테마 15개 체험시설 등

등록 : 2017-02-23 08:55 수정 : 2017-02-23 08:55



울산안전체험관 투시도 <사진제공=울산시>

(울산=포커스뉴스)다양한 재난 유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품격 높은 '울산안전체험관'이 건립된다.

울산 소방본부(본부장 허석곤)는 23일 오전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내 울산안전체험관 부지에서 '울산안전체험관 건립 기공식'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기공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, 윤시철 시의회 의장,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, 관내 유관기관장, 지역주민대표, 소방공무원,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.

'울산안전체험관'은 총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내, 부지 10만 8984㎡, 건축 연면적 7610㎡, 지하 1층, 지상 3층의 규모로 오는 2018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.

여기에는 15개 체험시설을 실제 사고현장과 유사하게 연출해 훈련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시공한다는 방침이다.

이와 함께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동해안의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도록 디자인을 구성했다. 3층에는 울산의 지형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진 및 원자력, 화학재난체험관의 특화관이 배치된다.

김기현 시장은 "지난해 규모 5.8의 지진과 태풍 '차바'등 울산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다"면서 "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 유형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품격 높은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"고 밝혔다.

이원호 기자 who805075@focus.kr

<저작권자(c) 포커스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

프린트

취소